

## 慧琳『一切經音義』에 반영된 경순음화 조건

박성준\*

### — 목 차 —

1. 서론
  - 1) 연구 동기와 목적
  - 2) 연구 범위와 방법
2. 전기 중고 한어 시기의 脣音 체계
  - 1) 분화 이전의 脣音
  - 2) 경순음화의 조건
3. 慧琳 『一切經音義』의 脣音 체계
  - 1) 慧琳 『一切經音義』의 輕·重脣音 반질
  - 2) 慧琳 『一切經音義』에 나타난 경순음화의 조건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전기 중고 한어 시기에서 후기 중고 한어 시기가 되면서 나타난 많은 음운변화 중 대표적인 음운변화인 脣音의 분화를 고찰했다. 상고 시기부터 重脣音이었던 하나의 脣音이 후기 중고 한어 시기에 이르러 重脣音과 輕脣音 두 가지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순음화가 일어난 조건으로 칼그렌(Karlgren)은 ‘3等 合口’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차오 위엔런(Chao Yuen Ren 1941), 潘悟雲(1983), 楊劍橋(1996) 등은 ‘3等 合口’라는 경순음화 조건을 비판하고, ‘-i-개음과 중설 혹은 후설모음’이라고 주장했다. 후기 중고 한어 시기의 작품인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는 脣音類가 두 가지로 분리되었다. 『玄應音義』에서 重脣音이었던 글자가 慧琳의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一切經音義』에서 輕唇音으로 바뀐 글자들의 반절을 분석하여, ‘-i-개음과 중설 혹은 후설모음’이라는 주장이 부합하는지 확인했다. 바뀐 글자들의 주요 모음은 -ɾ-, -e-, -u-로 모두 중·후설모음이었다.

**키워드:** 순음, 중순음, 경순음, 경순음화, 혀립, 일체경음의, 현음, 현음음의, 중고음

## 1. 서론

### 1) 연구 동기와 목적

전기 중고 한어 시기에서 후기 중고 한어 시기가 되면서 음운 체계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므로, 이 시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기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음운변화가 일어났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慧琳 『一切經音義』의 蟹攝의 반절을 분석하여 전기 중고 한어와 후기 중고 한어 시기에 운모 체계에서 어떠한 음운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고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중고 한어와 후기 중고 한어 사이의 작품인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 繫聯 결과를 분석하여 전기 중고 한어와 후기 중고 한어 시기의 성모 체계에서 어떠한 음운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그중에서 唇音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전기 중고 한어와 후기 중고 한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다. 그 사이 과도기 시기의 작품인 慧琳 『一切經音義』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姚永銘(2003), 金雪萊(2005), 趙翠陽(2009) 등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세 연구 모두 성모나 운부의 분합 양상만을 보여줄 뿐, 각각의 음운 체계를 수립하여서 음가를 재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박성준 2022: 70-71)

본 연구에서는 혜琳 『一切經音義』의 반절 繫聯을 분석하여, 전기 중고 한어 시기의 唇音 체계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음운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혜琳 『一切經音義』의 唇音 체계를 수립하고 그 음가를 재구하며, 전기 중고 한어부터 후기 중고 한어에 이르기까지 唇音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慧琳(737-820)은 전기 중고 한어 시기와 후기 중고 한어 시기의 과도기 시기인 盛唐 시기부터 中唐 시기를 거친 당나라 시기의 승려이다. 그는 서역 疏勒國(현재 新疆의 喀什지역) 출신으로 文字, 音韻, 訓詁에 정통했다.(姚永銘 2003: 1-5) 본 연구의 주 연구 대상인 혜琳의 『一切經音義』(783-807)는 中唐 시기의 작품으로 중요한 불경 음의서 중 하나이다. 『一切經音義』라는 책의 이름을 해석하면 ‘여러 경전에서 나오는 음과 뜻’이라는 의미이다. 즉, 혜琳의 『一切經音義』는 여러 경전에서 나오는 어려운 어구나 글자를 설명한 일종의 불교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총 1233部, 5250卷으로 불교 경전의 어휘의 形·音·義 등에 관해 주석했으며, 현재에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연구 가치가 높다.

慧琳 『一切經音義』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혜琳 『一切經音義』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 체계가 무엇인지 정립해야 한다. 혜琳 『一切經音義』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 체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韻書派와 實際語音派 두 가지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實際語音派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그 중에서도 韻書派가 아닌 正音派라는 의견에 동의한다.<sup>1)</sup>

1) 박성준(2022: 71-72)에서 韻書派와 實際語音派 두 가지 주장을 정리했고, 혜琳 『一切經音義』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 체계가 實際語音派 正音派라는 의견을 주장하는 근거도 정리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慧琳 『一切經音義』의 唇音 체계와 그 분화의 조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기 중고 한어 시기부터 후기 중고 한어 시기로 변화하면서 唇音 체계에는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 변화는 唇音이 重唇音과 輕唇音으로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존재했던 하나의 唇音이 重唇音이었는지, 아니면 輕唇音이었는지를 밝히고, 唇音이 어떠한 조건 아래서 重唇音과 輕唇音으로 분화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金雪萊(2005)에서 이미 모든 반절의 繫聯을 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唇音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전기 중고 한어의 唇音 체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전기 중고 한어에서 慧琳 『一切經音義』로 시기가 경과하면서 唇音 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 조건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 2. 전기 중고 한어 시기의 唇音 체계

중고 한어의 唇音字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전기 중고 한어 시기에서 후기 중고 한어 시기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輕·重唇音의 分化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輕·重唇音이 상고 한어 시기에 매우 유사했다는 것은 清代 錢大昕<sup>2)</sup>이 이

우선, 慧琳 『一切經音義』에서 하나의 被切字에 여러 반절을 사용한 현상을 근거로 볼 때 어떠한 韻書에 기초했다는 韻書派의 주장보다는 실제 음성을 기초로 하였다는 實際語音派의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인다. 周法高(1948: 368), 黃涇伯(1998: 5), 儲泰松(2005: 23) 등에서도 慧琳 『一切經音義』가 반영하고 있는 음운 체계는 實際語音派라고 주장했다.

實際語音派는 다시 方音派와 正音派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근거로 正音派의 주장에 동의한다. 첫째, 慧琳 『一切經音義』에는 ‘非典語’, ‘時俗語’라는 주석이 많이 등장한다. 이는 이와 대조되는 ‘正音’, ‘典語’가 당시 표준음 체계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둘째, 荻菲(2010: 27-28)에서는 당시 고위계층이 慧琳 『一切經音義』를 중시했는데, 이러한 사실 역시 慧琳 『一切經音義』가 당시 고위계층에서 사용한 표준음을 기초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서술했다.

2) 錢大昕은 古書의 異文, 漢魏反切, 直音과 讀若, 聲訓, 異讀, 重文, 方言 등 일곱 개 방면의 예를 들어 ‘古無輕唇音’설을 제시했다.(楊劍橋 1996: 133-134)

미 주장한 바 있으며, 학계에서도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중고 한어 시기 두 종류의 脣音이 상고 한어 시기 한 종류의 脣音으로부터 분화된 것임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유사성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음운론적으로 두 종류의 脣音이 서로 상보적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만 한다. 또한 이렇게 하여 상고 한어 시기에 오직 하나의 脣音類만 존재했음이 확정된 후에는 그 하나의 脣音이 輕脣音이었는지, 아니면 重脣音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이들이 중고 시기 이후 두 개의 脣音類로 분화되기 위한 조건을 밝히고 그 분화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 중에서 중고 한어 脣音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문제, 즉 상고 한어 시기의 脣音類가 단일한 것이었는지, 그 하나의 脣音이 輕脣音이었는지 아니면 重脣音이었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을 요약할 것이다. 이어서 중고 한어 시기 脣音 분화의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가운데 하나인 칼그렌(Karlgren)의 ‘3等 ㅅㅁ’라는 조건과 이를 반박하는 자오 위엔런(Chao Yuen Ren 1941), 潘悟雲(1983), 楊劍橋(1996) 등이 제시한 ‘개음 -i-와 중설 혹은 후설모음’이라는 조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분화 이전의 脣音

먼저, 상고 한어 시기에 두 脣音類가 서로 상보적이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切韻』 시기 두 脣音 성모류의 분포 상황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切韻』 시기에 輕脣音은 3등운에서만 출현하고, 重脣音은 輕脣音이 출현하는 3등운을 제외한 1, 2, 3, 4등 운모에서 출현한다.<sup>3)</sup> 또한 董同龢(1965: 141)는 博類 성

3) 『廣韻』 脣音 반절 상자의 대략적인 출현 환경은 다음과 같다. (楊劍橋 1996:137)

『廣韻』 脣音 反切上字	출현 환경
博類, 普類, 蒲類, 莫類	1. 1, 2, 4등운 2. 아래 칸의 경우를 제외한 3등운

모와 方類 성모가 같은 운모 앞에 동시에 출현하는 예는 없으며, 守溫字母에도 오직 ‘不’, ‘芳’, ‘並’, ‘明’의 네 가지 唇音類만 존재하고, 36자모에 나타난 重唇音과 輕唇音 구분은 반절 상자의 ‘博’, ‘方’류 구분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두 류로 나뉘는 반절 상자 성모류들이 본래는 하나의 성모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重唇音 글자와 輕唇音 글자가 서로의 반절 상자로 섞여 쓰이거나<sup>4)</sup>, 서로 異文으로 쓰이는 예 또한 두 唇音類가 서로 상보적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만약 『切韻』 시기의 두 唇音 성모류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며 하나의 성모로 취급될 수 있다면, 이 둘은 상고 한어 시기에도 하나의 부류에 속해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상고 한어 시기에 두 류로 나뉘어 있던 것이 전기 중고 한어 시기에 하나로 합쳐졌다가, 후기 중고 한어 시기에 다시 나뉘었다는 설명은 부자연스럽다. 상고 한어 시기에 하나의 부류에 속해있었고, 전기 중고 한어 시기에도 하나의 부류에 속해있었고, 후기 중고 한어 시기에 와서 두 개의 부류로 나뉘었다는 설명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輕唇音과 重唇音이 본래 하나의 唇音이었다가 후기 중고 한어 시기에 갈라진 것이라면, 重唇音으로부터 輕唇音이 분화된 것인지, 아니면 본래 輕唇音이었으나 이후에 重唇音이 생기며 분화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은 ‘古無輕唇音’이다. 楊劍橋(1996: 135-138)는 북방 방언과 비교해 상고음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 吳방언과 閩방언에서 輕·重唇音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확연히 重唇音이 많이 남아있음을 근거로 들어 ‘古無輕唇音’설에 동의함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漢·魏·晉·隋代 불경의 譯音에서 重唇音字 뿐 아니라 輕唇音

	3. 尤, 東三운의 明母字
方類, 芳類, 符類, 武類	東三, 鍾, 微, 虞, 廢, 文, 元, 陽, 尤, 凡의 10개 3등운(윗 칸의 3등운은 포함하지 않음)

4) 王三本에 수록된 경순음화되지 않은 12개 운(支, 脂, 祭, 眞, 仙, 宵, 侵, 鹽, 庚三, 清, 蒸, 幽)의 145개 重唇音 小韻 가운데, 輕唇音字를 반절 상자로 사용하는 것은 68개, 重唇音字를 반절 상자로 사용하는 예는 77개이다. (권혁준 역 2014)

字 또한 산스크리트의 雙唇音を 對譯하는 데에 쓰였다는 점도 지적했다.(楊劍橋 1996: 138)<sup>5)</sup>

## 2) 경순음화의 조건

이러한 重唇音이 후기 중고 한어 시기로 오면서 重唇音과 輕唇音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칼그렌은 '3等 ㅅㅁ'라는 경순음화의 조건을 처음 제시했다. 칼그렌은 [p]+[iu-]가 경순음화의 조건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이 조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楊劍橋(1996: 140-141)에서는 唇音字들이 開口인지 ㅅㅁ인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밝혔다. 그들은 때로는 開口字의 반절 하자로(殺, 所八切), 때로는 ㅅㅁ字의 반절 하자로(滑, 戶八切) 쓰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八은, 唇音 반절 하자 拔로 주음 되었는데, 拔은 다시 八로 반절 되었으므로, 八과 拔 모두 開口인지 ㅅ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이는 원래부터 唇音字에 開口와 ㅅㅁ의 구분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楊劍橋(1996: 141-143)에서는 唇音 3等 ㅅㅁ가 輕唇音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발음원리를 찾을 수 없고, 東三·尤韻의 明母字가 微母字로 변화하지 않은 현상에 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칼그렌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던 '3等 ㅅㅁ'라는 경순음화 조건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았다. 대표적으로 자오 위엔런(1941), 潘悟雲(1983), 楊劍橋(1996) 등은 '3等 ㅅㅁ'라는 경순음화 조건을 비판하고, 重唇音 p-, p<sup>h</sup>-, b-, m- 뒤에 개음 -i-와 중설 혹은 후설모음이 이어질 때 輕唇音 f-, v-, ʃ-로 변한다고 보는 경순음화 조건을 지지했다. 특히 자오 위엔런(1941:

5) paramita를 波羅密多로 對譯했다. 여기에서 '波'는 幫母字이다. 또한, purna를 富囉拏로 對譯했다. 여기에서 '富'는 非母字이다. 이처럼 漢, 魏晉, 隋代의 불경 역음에서 산스크리트의 雙唇音を 對譯하는 데에 重唇音字 뿐만 아니라 輕唇音字도 사용되었다.(楊劍橋 1996: 138)

224)은 칼그렌의 ‘3等 ㅅㅁ’라는 조건에 반박하기 위하여, 음소론의 각도에서 唇音字에 開口와 ㅅㅁ의 구분이 없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그는 “만일 唇音字에 고모음 개음 [i]가 있고 뒤에 중설 혹은 후설모음이 온다면, 늘 턱 위치의 수축을 수반한다. 따라서 아랫 입술이 윗니에 접촉하는 경향이 생기며, 이것이 바로 唇齒音의 발생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오 위엔런(1941)은 중고 한어의 ㅅㅁ 성분으로는 오직 하나의 음소 -u-만이 존재했을 뿐이라고 보았으며, 이 음소는 â, o, ə의 앞에 출현하고 -i-가 선행되지 않을 때, 또는 -i-를 제외하고 유일한 모음인 경우와(예를 들어 iu와 iung) 운미일 경우에는 -u-로 표기하고, 다른 경우에는 -w-로 표기한다고 했다. 또한 唇音은 뒤에 오는 운모가 독점적으로 開口, 혹은 ㅅㅁ일 경우에 그들을 따라 開口 혹은 ㅅㅁ가 되며, 운모가 開口와 ㅅㅁ의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開口도 ㅅㅁ도 아닌 단지 ‘唇音’으로 취급된다고 결론지었다. 즉 唇音 자체는 開口와 ㅅㅁ의 구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칼그렌의 경순음화 조건 ‘3等 ㅅㅁ’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대신에 개음 -i-와 중설 혹은 후설모음의 앞에 오는 唇音이 경순음화 된다고 주장했다.

### 3. 慧琳 『一切經音義』의 唇音 체계

본 장에서는 『切韻』에서 반절 상자가 서로 혼용되었던 輕·重唇音이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서로 분화되었는지 아닌지를 논할 것이다. 또한, 2.2에서 언급했던 輕·重唇音 분화의 조건에 대해서도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에서 예시를 찾아 논할 것이다.

#### 1) 慧琳 『一切經音義』의 輕·重唇音 반절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에서 輕唇音과 重唇音의 분화가 이미 완성되었

다는 증거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다.

- 첫째, 輕唇音과 重唇音의 반절 상자의 혼용 비율이 낮다.
- 둘째, 慧琳은 玄應의 『一切經音義』<sup>6)</sup>를 수록할 때 玄應의 唇音 類隔切<sup>7)</sup>을 모두 音和切<sup>8)</sup>로 고쳤다.
- 셋째,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非母字와 敷母字가 서로 혼용되었다. 非母字와 敷母字가 서로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輕唇音과 重唇音의 분화 과정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첫째로, 輕唇音과 重唇音의 반절 상자의 혼용 비율이 낮다. 金雪萊(2005: 29)의 통계에 의하면 輕唇音과 重唇音의 반절 상자가 서로 혼용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3.1」 慧琳『一切經音義』반절에서 輕·重唇音의 반절 상자 혼용 비율

	幫, 非	滂, 敷	並, 奉	明, 微
혼용된 반절	5	1	14	16
전체 반절	1160	677	982	1089
비율	0.43%	0.15%	1.43%	1.47%

「표 3.1」은 幫과 非, 滂과 敷의 혼용 비율은 1% 미만이고, 並과 奉, 明과 微의 혼용 비율은 1% 이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네 경우 모두 혼용 비율이 매우 낮다. 이를 통해 慧琳 『一切經音義』에서 輕唇音과 重唇音의 반절 상자가 거의 혼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輕唇音과 重唇音의 분화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둘째로, 慧琳은 『玄應音義』를 수록할 때 玄應의 唇音 類隔切을 모두 音

6) 慧琳의 『一切經音義』와의 구별을 위해 玄應의 『一切經音義』를 『玄應音義』로 표기한다.  
 7) 類隔切은 等韻門法의 한가지로 반절 상자와 피절자의 성모가 같은 성류에 속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楊劍橋 2008: 171)  
 8) 音和切은 等韻門法의 한가지로 반절 상자와 피절자의 성모가 같은 성류에 속하는 현상을 말한다.(楊劍橋 2008: 171-172)

和切로 고쳤다. 丁鋒(2005: 79-81)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아래의 「표 3.2」와 같다.

「표 3.2」 慧琳이 수정한 『玄應音義』의 唇音 반절

성모	被釋字	玄應 反切 / 성모	慧琳 反切 / 성모
幫	邠	甫貧反 / 非母	筆貧反 / 幫母
	庇	方利反 / 非母	必利反 / 幫母
	爆	方孝反 / 非母	布孝反 / 幫母
	躡	方尺反 / 非母	卑覓反 / 幫母
滂	剽	音芳反 / 敷母	匹妙反 / 滂母
並	毗	父美反 / 奉母	皮美反 / 並母
	圮	父美反 / 奉母	皮美反 / 並母
	臙	扶忍反 / 奉母	頻忍反, 頻泚反 / 並母
	踵	父佳反 / 奉母	步佳反 / 並母
	辮	父殄反 / 奉母	駢殄反 / 並母
	仿	扶羊反 / 奉母	婆羊反, 蒲晃反 / 並母
	俳	父皆反 / 奉母	敗皆反 / 並母
	炮	父包反 / 奉母	白包反 / 並母
明	芑	亡包反 / 微母	卯包反 / 明母
	蟻	亡結反 / 微母	眠結反 / 明母
	穰	亡悲反 / 微母	美悲反 / 明母
	糜	亡皮反 / 微母	媚悲反, 美皮反 / 明母
	犛	亡交反, 亡包反 / 微母	麻交反, 卯包反 / 明母
	寐	亡庇反 / 微母	民庇反 / 明母
	眯	亡禮反 / 微母	迷禮反 / 明母
	眇	亡紹反 / 微母	綿標反 / 明母
	分	亡江反 / 微母	麻邦反 / 明母
敷	孚	匹於反 / 滂母	芳於反 / 敷母
	翻	匹元反 / 滂母	孚元反 / 敷母
	撫	莫禹反 / 明母	音無反 / 微母

「표 3.2」는 『玄應音義』의 반절에서 輕唇音과 重唇音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慧琳이 이를 모두 바꾸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서 玄應의 시기에는 輕唇音과 重唇音의 분화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慧琳의 시기에 이르러서 輕唇音과 重唇音의 분화가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셋째로,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非母字와 敷母字가 서로 혼용되었다. 金雪萊(2005: 29)의 통계에 의하면 非母字와 敷母字가 서로 혼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以敷母切非母:

芬, 孚云反;

馱, 芳勿反;

犍, 妃封反;

以非母切敷母:

潘, 發爰反;

非, 非尾反;

斐, 非尾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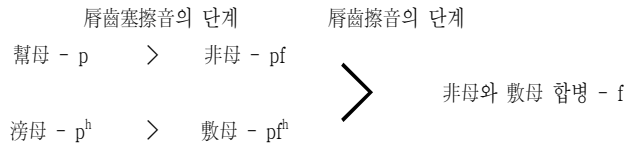
鋒, 否逢反;

潘悟雲(1983:25-26)에 의하면 輕唇音과 重唇音의 분화는 첫 번째로 脣齒塞擦音의 단계, 두 번째로 脣齒擦音의 단계를 경과하여 완성된다.

非母는 [pf], 敷母는 [pʰ]로 읽으며 무기(不送氣, unaspirated sound)음과 유기(送氣, aspirated sound)음의 차이가 있다. [pf]와 [pʰ] 두 발음은 윗니와 아랫입술이 공기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가 소리를 내고, 소리가 나는 동안 떨리는 음이다. 이 과정에서 塞音 [p]와 擦音 [f]가 연이어 발음되므로, 유기·무기를 구별하기 어렵다.

첫째, 脣齒塞擦音의 단계에서는 非母와 敷母가 서로 혼용되지 않는다.

둘째, 脣齒擦音의 단계에서는 非母와 敷母가 脣齒擦音인 [f]로 발음되며, 擦音인 [f]는 유기·무기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이 단계에서 非母와 敷母가 서로 합병되었다. 輕脣音과 重脣音의 분화 과정은 다음의 도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非母字와 敷母字가 서로 혼용된 현상은 輕·重脣音의 분화 과정에서 脣齒塞擦音의 단계를 지나서 이미 脣齒擦音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므로, 輕脣音과 重脣音의 분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 2) 慧琳『一切經音義』에 나타난 경순음화의 조건

3.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는 이미 경순음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그렇다면 경순음화의 조건에 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3.2에서는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을 분석하고 음가를 확인하여, 2.2에서 언급했듯이 자오 위엔런(1941), 潘悟雲(1983), 楊劍橋(1996)등이 주장한 ‘개음 -i-와 중설 혹은 후설모음’이라는 경순음화의 조건이 실제로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3.2」는 『玄應音義』의 반절에서 輕脣音과 重脣音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慧琳이 이를 모두 바꾸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글자들의 반절을 비교해보면 輕脣音과 重脣音의 분화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輕脣音과 重脣音의 반절을 분석해야 하지만 우선 「표 3.2」의 글자들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표 3.2」의 敷母 글자이다. 『玄應音義』에

서 重脣音 반절 상자로 나타내다가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輕脣音 반절 상자로 수정한 글자들이다.

성모	被釋字	玄應 反切 / 성모	慧琳 反切 / 성모
敷	孚	匹於反 / 滂母	芳於反 / 敷母
	翻	匹元反 / 滂母	孚元反 / 敷母
	撫	莫禹反 / 明母	音無反 / 微母

반절 하자 於의 반절은 央居이다. 반절 상자를 보면 성모는 影母이고, 반절 하자를 보면 운모는 魚韻이며, 평성에 3등운 글자이다. 元의 반절은 愚袁이다. 반절 상자를 보면 성모는 疑母이고, 반절 하자를 보면 운모는 元韻이며, 평성에 3등운 글자이다. 반절 하자 無의 반절은 武夫이다. 반절 상자를 보면 성모는 微母이고, 반절 하자를 보면 운모는 虞韻이며, 평성에 3등운 글자이다.

2.2에서 언급했듯이 脣音 글자에 開口와 合口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있다고 가정하면 세 글자는 모두 合口이다.

우선 모두 3등운 글자이므로 개음 -i-를 가지고 있다. 魚韻의 음가는 -i<sub>h</sub> > -i<sub>r</sub><sup>9)</sup>이고, 元韻의 음가는 -uen이다. 虞韻의 음가는 -io > -iu이다. 이를 보면 네 개의 반절의 반절 하자의 음가가 모두 자오 위엔런(1941), 潘悟雲(1983), 楊劍橋(1996)등이 주장한 경순음화 조건과 일치하는 중·후설모음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3」 「표 3.2」 敷母의 반절 하자 분석

반절 하자	반절	운부	성조 / 등	음가
於	央居	魚韻	평성 / 3	-i <sub>h</sub> > -i <sub>r</sub>
元	愚袁	元韻	평성 / 3	- <u>uen</u>
禹	王矩	虞韻	상성 / 3	-io > -iu
無	武夫	虞韻	평성 / 3	-io > -iu

9) 전기 중고 한어 시기와 후기 중고 한어 시기의 음가가 다르다. 鄭張尙芳(2003)의 음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표 3.2」의 幫·滂·並·明母 글자들이다. 『玄應音義』에서 輕唇音 반절 상자로 나타내다가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重唇音 반절 상자로 수정한 글자들이다. 위의 敷母와 같이 幫·滂·並·明母 글자들의 慧琳 『一切經音義』 반절 하자를 분석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3.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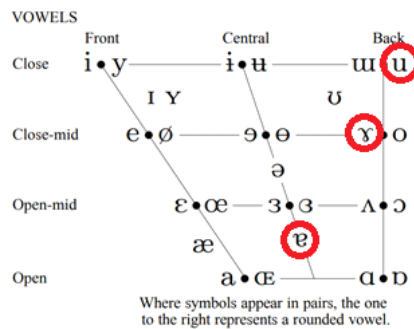
「표 3.4」 「표 3.2」 幫·滂·並·明母의 반절 하자 분석

반절 하자	반절	운부	성조 / 등	음가
貧	符巾	真韻	평성 / 3	-im
利	力至	脂韻	거성 / 3	-ir
孝	呼教	肴韻	거성 / 2	-yau
覓	莫狄	錫韻	입성 / 4	-ek > iek
妙	彌笑	宵韻	평성 / 3	-iɛu
美	無鄙	脂韻	상성 / 3	-ir
忍	而軫	真韻	상성 / 3	-im
泯	彌鄰	真韻	평성 / 3	-im
佳	古賤	佳韻	평성 / 2	-yɛ
殄	徒典	先韻	상성 / 4	-en > -ien
羊	與章	陽韻	평성 / 3	-ieŋ
晃	胡廣	唐韻	상성 / 1	-aŋ
皆	古諧	皆韻	평성 / 2	-yɛi
包	布交	肴韻	평성 / 2	-yau
密	美畢	質韻	입성 / 3	-it
結	古屑	屑韻	입성 / 4	-et > -iet
悲	府眉	脂韻	평성 / 3	-ir
皮	符羈	支韻	평성 / 3	-iɛ > ie
交	古肴	肴韻	평성 / 2	-yau
庇	必至	脂韻	거성 / 3	-ir
禮	盧啓	齊韻	상성 / 4	-ei > -iei
標	甫遙	宵韻	평성 / 3	-iɛu
邦	博江	江韻	평성 / 2	-yAŋ

「표 3.4」에서 먼저 3 등이 아닌 글자를 제외한다. 그리고 3 등 글자의 주요 모음을 살펴보면 -ɪ-, -ɛ-, -ɛ-, -e-, -ɐ-, -a- 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설모음으로 경순음화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ɐ-를 주요모음으로 가지는 글자는 ‘仿, 婆羊反’이다. 慧琳 『一切經音義』에서는 이 글자가 경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성모로 並母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仿’은 현대 표준중국어로 읽어도 [faŋ]214’으로 경순음화가 일어났으며, 楊劍橋(1996:137)가 말하는 輕脣音이 출현하는 조건에도 일치하므로 輕脣音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0)</sup> 따라서, 경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글자들의 경우에는 경순음화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표 3.3」을 통해 개음 -i-를 가지고, 주요모음으로 -ɣ-, -ɐ-, -u-를 가지는 경우에는 경순음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표 3.4」를 통해 개음 -i-를 가지지만 주요모음으로 -ɪ-, -ɛ-, -ɛ-, -e-, -a-를 가지는 경우에는 경순음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모음사각도에서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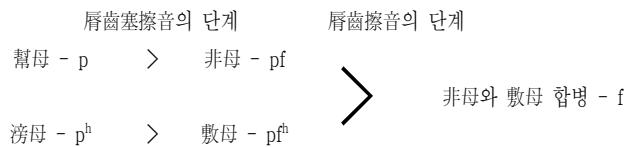
「그림 3.1」 慧琳『一切經音義』에서 경순음화가 발생한 중설 혹은 후설모음



10) 東三, 鍾, 微, 虞, 廢, 文, 元, 陽, 尤, 凡의 10개 3등운(윗 칸의 3등운은 포함하지 않음)이라는 조건에서 陽韻의 3등운 글자이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慧琳 『一切經音義』의 唇音을 분석하여 전기 중고 한어 시기의 唇音 체계와 어떠한 다른 측면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음운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고찰했다. 1장에서는 慧琳 『一切經音義』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慧琳 『一切經音義』가 그 당시 사대부 계층의 표준음 체계를 대표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2장에서는 상고 한어 시기의 唇音類가 단일한 것이었으며, 그 하나의 唇音이 輕唇音이 아니고 重唇音이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重唇音이 후기 중고 한어 시기에 重唇音과 輕唇音으로 나뉘어지는 경순음화의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칼그렌이 '3等 ㅅ口'라는 경순음화의 조건을 처음 제시했다. 그러나 자오 위엔런(1941), 潘悟雲(1983), 楊劍橋(1996) 등은 '3等 ㅅ口'라는 경순음화 조건을 비판했으며, 重唇音 p, p<sup>h</sup>, b, m 뒤에 i 개음과 중설 혹은 후설모음이 이어질 때에 輕唇音 f, v, ɱ로 변한다고 보는 경순음화 조건을 주장했다. 3장에서는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에서 輕唇音과 重唇音의 분화가 이미 완성되었다 사실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輕唇音과 重唇音의 분화 과정과 음가를 아래와 같이 나타냈다.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을 분석하고 음가를 확인하여, 자오 위엔런(1941), 潘悟雲(1983), 楊劍橋(1996) 등이 주장한 '개음 -i-와 중설 혹은 후설모음'이라는 경순음화의 조건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했다. 「표 3.3」과 「표 3.4」를 통해 개음 -i-를 가지고 주요모음으로 -ɣ-, -v-, -u-와 같은 중·후설모음을 가지는 경우에는 경순음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개음 -i-

를 가지지만 주요모음으로 -i-, -e-, -ɛ-, -e-, -a-와 같은 전설모음을 가지는 경우에는 경순음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이는 자오 위엔런(1941), 潘悟雲(1983), 楊劍橋(1996) 등이 주장한 ‘개음 -i-와 중설 혹은 후설모음’이라는 경순음화의 조건과 부합했다.

본 연구는 慧琳 『一切經音義』의 반절을 직접 분석하여 경순음화의 조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玄應音義』에서 重唇音 반절 상자로 나타내다가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輕唇音 반절 상자로 수정한 글자들과 『玄應音義』에서 輕唇音 반절 상자로 나타내다가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重唇音 반절 상자로 수정한 글자들만을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에 보충 연구를 통해서 慧琳 『一切經音義』의 모든 唇音 글자를 분석하여 자오 위엔런(1941), 潘悟雲(1983), 楊劍橋(1996) 등이 주장한 ‘개음 -i-와 중설 혹은 후설모음’이라는 경순음화의 조건이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권혁준 역, 『중국어 역사 음운학』, 서울: 學古房, 2014(潘悟雲,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 노혜정, 「중고 한어 순음 분화와 한국 한자음 순음의 층위: 언어 접촉과 언어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35집, 2016.
- 노혜정, 「음변화 이론을 통한 中古 중국어 음운 변천 연구- 脣音を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77집, 2018.
- 노혜정, 「中古 중국어 脣音 연구 재고 —散點多線式 음변화 모형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107집, 2021.
- 도혜숙, 「希麟『續一切經音義』와 脣音 분화 현상 연구」, 『중국문학』 107집, 2021.
- 박성준, 「慧琳『一切經音義』 蟹攝의 음운 체계」, 『중국어문학』 90집, 2022.
- 최영애 역, 『古代漢語音韻學概要』, 서울: 민음사, 1985(Karlgren, Bernhard,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1954).
- 艾菲, 「慧琳『一切經音義』의 음운 현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趙元任·李方桂, 『中國音韻學研究』, 臺北: 商務印書館, 1967(Karlgren, Bernhard, 『E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1915-26).
- 儲泰松, 『唐五代關中方音研究』, 安徽: 安徽大學出版社, 2005.
- 丁鋒, 「慧琳改訂玄應反切聲類考-兼論唐代長安聲母演變過程」, 『音史新論-慶祝紹榮芬先生八十壽辰學術論文集』, 臺北: 學苑出版社, 2005.
- 董同龢, 『漢語音韻學』, 北京: 中華書局(2001年 1版), 1965.
- 潘悟雲, 「中古漢語輕脣化年代考」, 『溫州師專學報』 2期, 溫州大學, 1983.
- 黃淬伯, 『慧琳一切經音義反切攷』, 臺灣商務印書館, 1931.
- 黃淬伯, 『唐代關中方音系』,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 黃笑山, 『「切韻」和中唐五代音位系統』, 臺北: 文津出版社, 1994.
- 金雪萊, 「慧琳『一切經音義』 語音研究」,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1980年 新1版), 1958.

- 王力, 『漢語音韻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王力, 『漢語音韻』, 北京: 中華書局, 2003.
- 楊劍橋, 『漢語現代音韻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6.
- 楊劍橋, 『實用古漢語知識寶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8.
- 姚永銘, 『慧琳「一切經音義」研究』, 江苏古籍出版社, 2003.
- 趙翠陽, 「慧琳『一切經音義』韻類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2009.
- 鄭張尚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
- 周法高, 「玄應反切考」, 『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20本, 1948.
- 周法高, 「論上古音和切韻音」, 『中國音韻學論文集』,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84.
- Baxter, William,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yter, 1992.
- Baxter, William,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Chao Yuen Ren, 「Distinctions Within Ancient Chines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5, No.3/4, 1941.
- Pulleyblank, Edwin,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Chinese』,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4.
- 龍宇純(1989), 『韻鏡校注』, 臺北: 藝文印書館 (2005年 影印 16版).
- 『等韻五鍾』, 臺北: 藝文印書館 (2005年 影印 8版).
- 『四聲等子』, 臺北: 藝文印書館 (1968年 中國影印).

## Abstract

### Condition of Labiodentalization as Reflected in the Huilin's Yiqiejingyinyi

Park, Sung Jun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labiodentalization that occurred between Early Middle Chinese and Late Middle Chinese. Because Huilin's Yiqiejingyinyi is a book of transitional period between Early Middle Chinese and Late Middle Chinese period, this book was used in this study.

Labial are separated into Bilabial and Labiodental in the Late Middle Chinese period. Karlgren insisted on the occurrence of labiodentalization in the condition of 'Division III + hekou[合口]'. But, his insistence has some problems. Chao Yuen Ren, Pan Wu Yun, Yang Jian Qiao opposed Karlgren's insistence, and they insisted that labiodentalization occurs when labial is followed by Medial -i- and a Middle·Back vowel.

Analyzing the letters and fanqie[反切], we can find three evidences that labiodentalization occurred at this time. First, there is a very small proportion of bilabial and labiodental merged in fanqie. Second, when Huilin took the letters of Xuanyingyinyi and wrote them, he changed all of labial Leigeqie[類隔切] to Yinheqie[音和切]. Third, in Huilin's Yiqiejingyinyi Feimuizi[非母字] was merged with Fumuizi[數母字].

Huilin replaced the letters that were bilabial in Xuanyingyinyi to labiodental in Yiqiejingyinyi. By analyzing the letter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dition of 'Medial -i- and a Middle·Back vowel' was correspond to labiodentalization. The main vowel of the replaced letters are -ɣ-, -ɸ-, -u-, all of which are Middle·Back vowels.

**Key words** : Labial, Bilabial, Labiodental, Labiodentalization, Huilin, Yiqiejingyinyi, Xuanying, Xuanyingyinyi, Middle Chinese

투 고 일 : 2023. 1. 10. / 심 사 일 : 2023. 1. 15.~ 2023. 2. 15. / 게재확정일 : 2023. 2. 20.